



설 선물 가득 쌓인 국회 의원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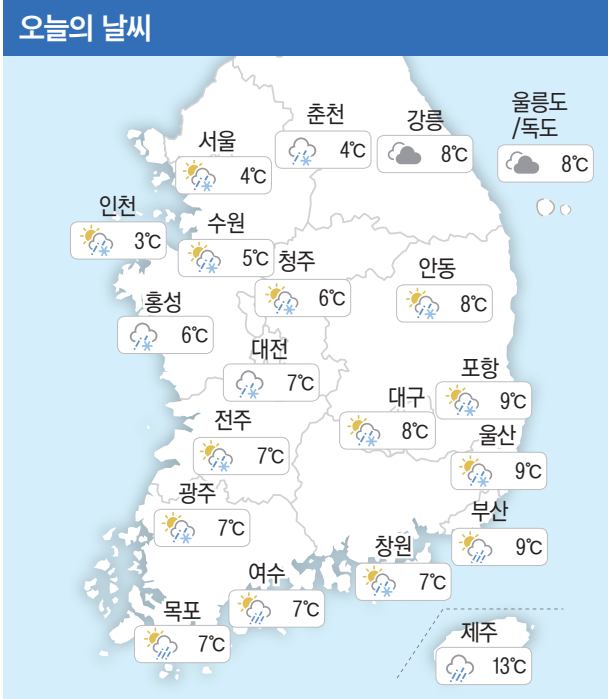
설 연휴를 앞둔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복도에 설 선물 택배 상자로 가득 차 있다. [사진부=이종원·박미나 기자]















민주노총 콜센터 노동자 연대회의가 9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불안과 차별철폐와 노동 3권을 온전히 확보하기 위한 투쟁을 선포하며 위탁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 해 온 진짜 사장 원청이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낮 기온이 영상10도를 기록한 9일 강원 강릉시 경포해변에서 관광객들이 두꺼운 외투를 벗어 놓고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만들고 있다. 연합뉴스



오늘의 운세

 쥐띠	48년 집콕은 답답하니 외출하라. 60년 사소한 다툼이 커질 수도 있다. 72년 멍때리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법. 84년 대중대중 한다면 문제가 생긴다. 96년 두 마리 토끼 잡기가 쉽지 않다.	 용띠	52년 나 자신과의 약속을 이행하라. 64년 실수는 솔직히 인정하라. 76년 예민해진 마음을 다잡아야. 88년 어려운 일이 풀리는 순탄한 하루. 00년 단순하게 생각해야 풀리게 된다.	 원숭이띠	56년 반대하기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라. 68년 사랑이야말로 최고의 보약. 80년 고민 없는 인생은 없다. 92년 호기심이 삶을 풍요롭게 한다. 04년 갈대처럼 흔들리는 것이 사람.
 소띠	49년 한번 속은 것으로 족하다. 61년 아직 기회가 남아있으니 실망 말라. 73년 벤치마킹으로 혁신을 이루어내야. 85년 자만은 큰 적(敵)이다. 97년 칭찬받을 수 있는 좋은 예감이 든다.	 뱀띠	53년 내 마음 갈지 않은 것이 세상인심. 65년 우환은 한꺼번에 닥칠 수도 있다. 77년 새로운 시작은 두려움을 동반한다. 89년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듯하다. 01년 자랑하면 사람이 모이지 않는다.	 닭띠	45년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보는 법. 57년 친구가 있어 회포를 풀게 된다. 69년 미루었던 일은 오늘 해결하자. 81년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는 시기. 93년 생각하는 대로 가는 것이 인생.
 범띠	50년 경청해 주고 격려해 줘야 한다. 62년 가족력을 유심히 살펴보라. 74년 숨어 있는 인재를 찾아내야 한다. 86년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중심 잡기. 98년 인사만 잘해도 사회생활이 편하다.	 말띠	54년 객관적으로 봐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66년 순간의 선택이 후회되지 않도록 하자. 78년 우직하게 나아가면 결실이 있다. 90년 법(法)보다 주먹이 앞선다. 02년 치밀함이 실수를 줄이게 한다.	 개띠	46년 실현 가능한 꿈을 꾸고 이행하기. 58년 남탕 하지 않는 사람이 대인. 70년 성급한 말은 후회를 낳으니 신중해야. 82년 원인을 찾아보면 답이 나온다. 94년 실력은 종이 한 장 차이다.
 토끼띠	51년 균형과 중용의 미덕을 보여라. 63년 혼자 하지 말고 함께 가라. 75년 신세 진 분들에게 인사를 하자. 87년 변화의 기운이 내게도 닥쳐온다. 99년 애정전선은 맑아진다.	 양띠	55년 종교와 철학에도 관심을 가질 때. 67년 판단이 곤란할 때 조언을 구하라. 79년 신중하게 상황을 파악하라. 91년 뿌리깊은 나무가 되듯이 기초를 튼튼하게. 03년 나눠주면 얻어지는 것이 생긴다.	 돼지띠	47년 나의 생각이 관철될 것이다. 59년 유쾌한 소식이 당도할 듯. 71년 심신이 피곤할 때 휴식은 만병통치약. 83년 때론 단념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95년 요행수는 바라지 말라.

제이 이원오 선생(제이작명철학원 원장) 02) 401-7106

삼양식품은 '삼양1963' 출시 100일을 맞아 서울 삼성동 코엑스 밀레니엄 광장에서 '삼양1963 백일잔치' 팝업스토어를 개최했다. 이번 팝업은 소비자들의 성원에 보답하고, 삼양1963 출시 100일의 의미를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삼양식품